

아동 자연·생태친화도시 전주 만든다

시, 조례 제정·숲 체험교실 운영·내년까지 '아이숲' 10곳 확대 조성 등... 유니세프 인증 추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을 위해 전주시가 추진해온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연 학습 공간인 '전주 아이숲'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아동친화도시 디자인으로 지난해 조성된 '박정벌레 숲'과 '임금님 숲'에 이어 오는 2017년까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 숲을 10곳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아이들 전용 자연생태 학습공간인 전주 아이숲이 조성된 곳은 남부권 남고산 인근과 북부권 건지산 조경단 인근 등 모두 두 곳으로, 시는 지난해 총 3900만원을 들여 완산구와 덕진구에 각각 한곳씩 아이숲을 조성했다. 시는 오는 5월 중 전주 아이숲 공식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고사 아래편에 조성된 아이숲은 박정벌레가 서식하고 있는 주변환경을 고려해 '박정벌레숲'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건지산 조경단 인근 아이숲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21대조인 이한공의 묘소인 조경단의 유래를 담아 '임금님 숲'으로 명명했다.

'박정벌레숲'에는 바질오르기와 흔들다리, 모인터, 소꿉놀이터 등 아이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설치됐으며, 건지산 임금님숲은 기존의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바질그늘안락과 징검다리, 울막, 산책로 등이 조성돼 아이들이 마음껏 자연을 벗하며 뛰어 놀 수 있는



스쿨팜 체험하는 아이들

농협 익산지사와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도시 어린이들에게 농업·농촌 체험활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스쿨팜 체험장을 지난 29일 금강동 이리신흥초등학교에 마련했다. 사진은 신흥초등학교 학생들이 스쿨팜 체험장에서 농작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공간으로 거듭났다.

시는 중앙부처와 전북도, 시의회, 다올마당 위원 등과의 협의 및 예산확보 과정을 거쳐 이러한 아이숲을 꾸준히 늘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아이들이 도심 숲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오감체험을 통해 자연이 주는 혜택과 소중함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숲 체험교실'도 매주 월·수·금요일 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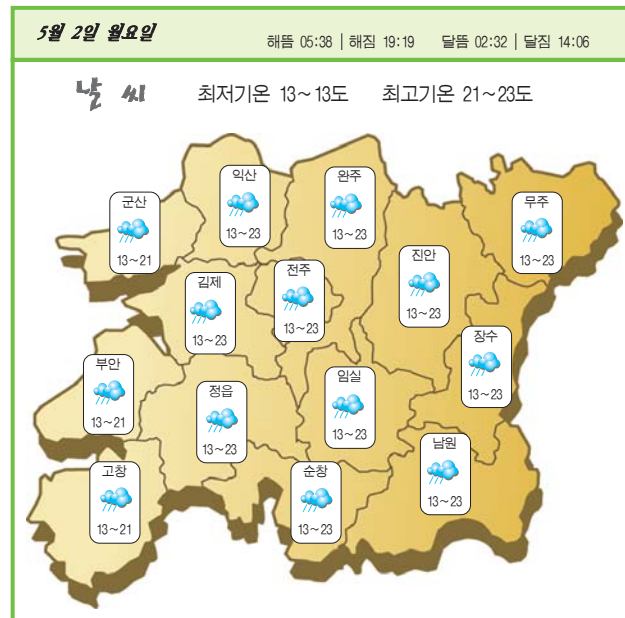
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또, 생태습지체험은 완산칠봉 생태습지, 건지산 오송제,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서, 야생화체험은 자연생태체험학습원과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4년 12월 아동친화TF팀을 신설, 지난해 12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과 아동 안전 시스템 구축,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등의 의무사항을 담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아동영양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과 아동정책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기 위한 아동실태조사·아동권리인식도조사·아동친화도평가 용역도 발주했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숲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실이자 선생님"이라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연의 소중함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아이숲 조성으로 아동친화도시 전주,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동 인프라를 확충해 오는 2017년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국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워크숍 개최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주관

완주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완주군 상관면에서 위치한 상관리조트 & 스파에서 '제1회 2016 전국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가 주최하고, 완주군자원봉사센터와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전국 단위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220여명은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제1회 2016 전국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연찬회 및 사무국장 워크숍' 개최식을 마친 후 센터장 연찬회는 부안 해나루 가족호텔, 사무국장 워크숍은 완주군 소재 상관리조트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각각 진행됐다.

사무국장 워크숍은 '자원봉사센터 실무책임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한국자원봉사센터 권미영 사무총장의 특강과 '자원봉사를 바꾸는 시간'

으로 광역시·도센터 사무국장 4인의 10분 토크 콘서트, '자원봉사센터 핵심전략 구축을 위한 아젠다 설정'을 위한 코리아스피크 이병덕 대표의 속의형 워크숍으로 자원봉사의 실천적 과제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자원봉사센터의 주도적 역할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실질적인 학습 효과와 실무 책임자들의 다양한 정보 교류에 큰 도움이 됐다.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이성운 사무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발판으로 다가오는 7월에 완주군 우석대학교에서 치러질 '제1회 2016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으며, 또한 "전국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며 발로 뛰는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주영화제 '셰익스피어' 특별전 영국 '매료'

주한 영국사절 7명 김승수 시장과 '리처드 3세' 관람 한옥마을 등 방문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매력에 '셰익스피어의 나라' 영국도 매료됐다. 전주국제영화제 행사 이틀째인 29일 '셰익스피어 인 시네마' 특별전이 진행될 가운데, 주한 영국대사관 수키노시타(Sue Kinoshita) 부대사와 마틴 프라이어(Martin Fryer) 영국문화원장 등 주한 영국사절 7명은 전주의 볼거리와 전통문화, 최첨단 영화영상의 아름다움에 반했다.

주한영국사절단의 이번 전주 방문은 주한영국문화원이 CGV 아트하우스와 함께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셰익스피어 인 시네마'라는 특별전을 개최한데 따른 것으로, 이들은 지난 28일 개막식 참가를 시작으로 2박 3일간 전주에 머물렀다.

영국부대사와 영국문화원장 일행은 이번 방문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민성욱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 부위원

장과 셰익스피어 영화 '리처드 3세'를 함께 관람했다.

이들은 또한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한식조리학교 등을 방문해 전주의 문화육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의 밥날 정취에 흠뻑 젖었다.

주한영국문화원은 영화제 이틀째인 29일 밤 10시부터 진행된 셰익스피어 나이트 리셉션을 후일, 전주시민들과 국내·외에서 전주를 찾은 많은 영화

팬들에게 올해가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의 서거 400주년을 알리기도 했다.

마틴 프라이어 주한영국문화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국-영국의 영화 등 문화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전주의 한국적이고 정적인 문화와 전주국제영화제의 역동적인 모습에 감탄했다"고 밝혔다.

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주한영국대사관, 주한영국문화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오는 '2017-20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영국에 전주를 한국문화의 수도로 알려 문화영토를 유럽까지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원 심폐소생술 교육

전주시는 29일 시청 강당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봉사단, 재난담당 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심장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환자의 심장정지 발생시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 방법을 몸으로 익혀 민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중앙E.F.R교육센터 강사의 ▲심폐소생술 정의 ▲하임리히요법, AED사용법 등 상황별 응급처치 교육 ▲심실 등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심폐소생술(CPR)은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될 때 인공적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함으로써 사망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기술로 심장정지 발생시 4분 내에 대응이 뇌손상의 유무가 결정된다. /김영재 기자